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328호 [루체 제25471호] 주제 105 (2016)년 11월 23일 (수요일)

사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심화발전시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이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투쟁력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

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

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3대혁명을

힘 있게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총

선을 떤 없이 펼쳐져 철저히 관

찰함에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

었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면 3대혁명붉은

기쟁취운동을 심화발전시켜 그 위력을

높이 알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로선을 철저히 관찰하여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면 3대혁명붉은

기쟁취운동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심화발전

시키는 것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지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영

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본질에 있어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개조

해나가기 위한 투쟁이다. 사람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관찰, 우리 당의

주체의 사회주의의 힘을,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물없이 놓아내며 조선혁명가

들이 시대와 일상에 깊어온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지는 길이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관찰, 우리 당의

주체의 사회주의의 힘을,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물없이 놓아내며 조선혁명가

들이 시대와 일상에 깊어온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지는 길이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관찰, 우리 당의

주체의 사회주의의 힘을,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물없이 놓아내며 조선혁명가

들이 시대와 일상에 깊어온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지는 길이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관찰, 우리 당의

주체의 사회주의의 힘을,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물없이 놓아내며 조선혁명가

들이 시대와 일상에 깊어온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지는 길이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관찰, 우리 당의

주체의 사회주의의 힘을,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물없이 놓아내며 조선혁명가

들이 시대와 일상에 깊어온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지는 길이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관찰, 우리 당의

주체의 사회주의의 힘을,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물없이 놓아내며 조선혁명가

들이 시대와 일상에 깊어온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지는 길이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관찰, 우리 당의

주체의 사회주의의 힘을,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물없이 놓아내며 조선혁명가

들이 시대와 일상에 깊어온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지는 길이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관찰, 우리 당의

주체의 사회주의의 힘을,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물없이 놓아내며 조선혁명가

들이 시대와 일상에 깊어온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지는 길이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관찰, 우리 당의

주체의 사회주의의 힘을,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물없이 놓아내며 조선혁명가

들이 시대와 일상에 깊어온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지는 길이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관찰, 우리 당의

주체의 사회주의의 힘을,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물없이 놓아내며 조선혁명가

들이 시대와 일상에 깊어온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지는 길이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관찰, 우리 당의

주체의 사회주의의 힘을,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물없이 놓아내며 조선혁명가

들이 시대와 일상에 깊어온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지는 길이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관찰, 우리 당의

주체의 사회주의의 힘을,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물없이 놓아내며 조선혁명가

들이 시대와 일상에 깊어온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지는 길이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관찰, 우리 당의

주체의 사회주의의 힘을,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물없이 놓아내며 조선혁명가

들이 시대와 일상에 깊어온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지는 길이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관찰, 우리 당의

주체의 사회주의의 힘을,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물없이 놓아내며 조선혁명가

들이 시대와 일상에 깊어온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지는 길이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관찰, 우리 당의

주체의 사회주의의 힘을,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물없이 놓아내며 조선혁명가

들이 시대와 일상에 깊어온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지는 길이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관찰, 우리 당의

주체의 사회주의의 힘을,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물없이 놓아내며 조선혁명가

들이 시대와 일상에 깊어온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지는 길이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관찰, 우리 당의

주체의 사회주의의 힘을,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물없이 놓아내며 조선혁명가

들이 시대와 일상에 깊어온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지는 길이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관찰, 우리 당의

주체의 사회주의의 힘을,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물없이 놓아내며 조선혁명가

들이 시대와 일상에 깊어온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지는 길이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관찰, 우리 당의

주체의 사회주의의 힘을,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물없이 놓아내며 조선혁명가

들이 시대와 일상에 깊어온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지는 길이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관찰, 우리 당의

주체의 사회주의의 힘을,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물없이 놓아내며 조선혁명가

들이 시대와 일상에 깊어온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지는 길이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관찰, 우리 당의

주체의 사회주의의 힘을,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물없이 놓아내며 조선혁명가

들이 시대와 일상에 깊어온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지는 길이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관찰, 우리 당의

파선시당위원회 선전총동부
장이었던 김기철동무는 우리 당
이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일군들중의 한 사람
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결모양은 소박하고 수수
해도 심장의 고동은 언제나
당의 뜻으로 놓이고 온몸이
혁명열, 투쟁열로 불리는
일군, 이것이 우리 당이 바라
는 선전전군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김기철동무를 뜨겁
게 추억하는 것은 그가 위대한
수령님들을 끌어 우러러보시고

수령결사옹위는

충정과 보답의 한길에서 삶을 빛내인 당선전일군

라

선 시 당 위 원 회

선 전 선 동 부 장 이 염 던

김 기 철 동 무

정에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충정
으로 받드는 걸에 자기의 깨끗
한 삶을 다 바쳤기 때문이다.

하기에 비선시 일군들과 당원
들과 근로자들은 대중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
인 당정으로 청탁해 투ーシ키
기 위한 사업에 자기의 온갖 힘
을 다해온 것이다.

지체없이 큰물에 봉기된 당선
전일군의 임모습을 새겨인인다.

우리의 생명이다

거쳐있다.

『그때에는 누구도 그 위험한
곳으로 갈 생각을 하지 못하였
습니다. 김기철동무는 우리 당
의 혁명진통을 용호고수하는 것
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면서

사용품을 물속에 단신으로 헤쳐
나갔습니다.』

시당위원회 부부장 전현창동
무가 지난해 8월 폐년에 있는
무기기에서 의문한 큰물로 선봉지
구의 혁명사적지들이 피해를 입
게 되었을 때를 회상하며 하는
말이었다.

제방폭우 넘어선 큰물이 사정
없이 선봉지구의 한 혁명사적건
물을 훔쳤을 때였다.

사람들은 물살을 헤치고 혁명
사적건물을 향해 달려오는 승용
차가 있었다. 김기철동무가 한
승용차에 내리면서 내리며
자마자 달려온 인민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동무들, 한들이 그대로 세방
이 되고 성벽이 되어서 라도
사적건물을 무조건 지켜냅시다.』

이날 선봉지구의 인민들은 김
기철동무의 지휘하에 사적건물을
保住하려고 힘을 썼다. 하지만
무서운 병마를 당원들과 당군들
에게 풀어놓았다.

『여보, 병이 심한데 또 나가

나는 당일군이기 전에 당원이다

김기철동무는 결모양은 소박
하고 수수해도 온몸을 혁명열,
투쟁열로 끌어온 성실한 당원이
었다.

라선시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칭송히 모시기 위한 사업
에 함께 벌여온 남편이었다. 하
지만 남편의 병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고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있었기에 그는 남
편의 손을 허고 놓지 못했다.

『당신이야 내 심정을 잘 알지
않소. 정직한 노동자였던 나를
한국 시의 당사상사업을 책임진
일군으로 기워온 온의에 내려놓
게 무언가를 전적으로 생산하
고 사업을 주지 않았다. 자신이
직접 헌금을 탈리며 부족되는
자재를 해결해왔다.』

그렇게 품을 헌사하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근심어린 어조로 묻
는 의사에게 김기철동무는 이
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제의
태양으로 높이 반들여보시는 것
은 당원인 나의 의무입니다.』

그때 반았던 강렬한 충동이
다시금 리인숙동무의 가슴을 두
드렸다.

『달리는 살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들이 면제
되게해야 한다고 하면서 끝내

죽어버렸다.』

김기철동무는 그의

생애는 원수님의 명도를 충정
으로 받드는 걸에 자기의 깨끗
한 삶을 다 바쳤기 때문이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를 끌어내기 위해 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칭송하며 칭송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끌어내기
위해 힘을 썼다.

『여보, 병이 심한데 또 나가

꼴에에는 번창이 없었다. 날이
갈수록 아름은 머물고 웃음을
지어보이며 점을 나서는 남편을
더 높이 옮겨가기 위한 사업
에 자신의 힘을 쟁고자 바칠것
을 결의하였다.

그래 보진 아름을 참아가면서
영광란전립에 충정을 바쳐가면
김기철동무는 끝내 쓰러져고 말

았다. 이제 나에게 남은 생은 얼마
되지 않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을 실

다음날 광사현장을 찾아 성의

핏 마련한 지진불자를도 안겨주
고 경제선동을 벌리며 광사장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 그들이

마로 김기철동무는 진실장을 뜨지
않고 날과 밤이 따로 없이 철두
를 지휘하였다.

그리고 2015년 래양절
맞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칭송하며 모실 수 있게 되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을 실

향기로운 꽃에 벌들이 날아든다

사양하였다.

이런 일이 여러번 반복되자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한적
이 있었다.

『김기철동무는 소박하면서도
돌이 없었습니다. 늘 점점은 웃자
렁하고 토종들과 허물없이
어울리기 위해 사람들은 누구나
그를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향기로운 꽃에 벌과 나비가
쫓아웃이 김기철동무한테는
데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

았다.

자기의 미워하는 짐단과 빙진의
다른 사람들의 아름을 언제나
기록하면서도 그의 딸은 성

장하였다. 대화를 즐기고 어
엿한 당일군이 될 때도 그 딸은
침침한 품성으로 벌과 나비가
쫓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김영미동무는 그때 아버지가
왜 좋은 살풀집을 헌사하고 양보
하였는지, 단단한 가정의 행복도
뒤로 미루고 한생을 당시당선

에 바치었는지 알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시상
사업부문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김기철동무는 아래 일군들에
제 무엇을 언제까지 해체해오라고
파업을 주지 않았다. 자신이
직접 헌금을 탈리며 부족되는
자재를 해결해왔다.

『당신이야 내 심정을 잘 알지
않소. 정직한 노동자였던 나를
한국 시의 당사상사업을 책임진
일군으로 기워온 온의에 내려놓
게 무언가를 전적으로 생산하
고 사업을 주지 않았다. 자신이
직접 헌금을 탈리며 부족되는
자재를 해결해왔다.』

그때 반았던 강렬한 충동이
다시금 리인숙동무의 가슴을 두
드렸다.

『당일군이 살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들이 면제
되게해야 한다고 하면서 끝내

죽어버렸다.』

김영미동무는 그의

생애는 원수님의 명도를 충정
으로 받드는 걸에 자기의 깨끗
한 삶을 다 바쳤기 때문이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를 끌어내기 위해 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칭송하며 칭송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끌어내기
위해 힘을 썼다.

『여보, 병이 심한데 또 나가

나는 당일군이기 전에 당원이다

김기철동무는 결모양은 소박
하고 수수해도 온몸을 혁명열,
투쟁열로 끌어온 성실한 당원이
었다.

그리고 2015년 래양절
맞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칭송하며 모실 수 있게 되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을 실

사랑과 헌신의 마음 안고

국가과학원 중앙연구소로동자 최명철동무

국가과학원 중앙연구소로동자 최명철동무

온 길었다.

『홍금철동무는 조국을 위해

같이 헌신했던 사람과 함께

나왔을 때에는 계집먼지 데려가

고기장을 만들었고 홍금철동무

는 그의 딸이 되었다. 그리고는

한국과 함께 일하고

나온 길이었다.

그리고는 홍금철동무는

